

研究論文

# 20세기 '대중 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고 은 지\*

I. 문제제기	V. 맺음말
II. '조선역사'에 대한 열풍, 역사의 대중화	<참고문헌>
III. 야담대회의 시작과 대중적 변모 과정	<국문요약>
IV. 야담잡지의 출현, '건전한' 혹은 '불온한' 야담의 두 얼굴	

## I. 문제제기

고전문학사에서 야담은 '조선 후기 시정 문화의 출현을 배경으로 이 주변에서 떠돌던 다채로운 삶의 모습들을 한문으로 기록한 단편의 서사물'로 규정된다. 특히 야담은 동시대에 존재했던 어떠한 문학 장르보다 '붕괴 해체기 당대의 현실을 생동감 있고 폭넓게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sup>1)</sup> 이에 비해 20세기 야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1928년 김진구에 의해 '야담운동'이라 명명되면서 본격화된 야담의 20세기적 변모는, 1930년대 율백남으로 중심이 이동되면서 상업주의적 통속화의 경로로 왜곡되어 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2)</sup>

\* 고려대학교 강사, 고전시가 전공(any428@hanmail.net).

1) 정출현, 「야담의 세계」, 민족문화사연구소(엮음), 『민족문화사 강좌(상)』(창작과 비평사, 1995).  
 2) 임형택, 「야담의 근대적 변모」, 『한국한문학』, 학회창립 20주년 기념호(한국한문학회, 1996); 정부교, 「근대 야담의 전통 계승 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지』, 35(문창어문학회, 1998);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화사연구』, 20(민족문화사학회, 2002).

20세기 전반 한국 사회에서 ‘잘 팔리는 문화 상품’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었음에도, 야담에 대한 연구가 소략했던 것은, 그것이 ‘저열하고 통속적인’ 대중문화의 권역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중문화를 ‘가치 없음’으로 규정하는 시선들에 의해 20세기 야담은 당대 그것이 누렸던 인기의 실체가 무색할 정도로 무관심하게 버려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급하고 순도 높은’ 예술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당대 삶을 구성하고 있는 저급하고 조악한 문화적 실체들이 ‘편견 없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야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이 글 역시 이러한 논의들과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세기 전반 한국 대중문화의 지형도 속에서 전근대적 양식인 야담이 ‘민중의 오락’으로 탄생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고, 그 결과 만들어진 ‘20세기 야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II. ‘조선역사’에 대한 열풍, 역사의 대중화

야담이 20세기 대중의 오락으로 탄생되는 단초는 1920년대 발흥된 ‘조선학 열풍’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인으로 조선어와 조선사를 알아야 하겠다’는 ‘향학열’(*조선일보*, 1928.11.25)을 확산시키기 위한 민족주의적 기획 하에 많은 역사 저작들이 생산되었다. 이 이전까지 역사는 철저하게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다. 물론 개항 이후 을지문덕이나, 최영 등의 전기물들이 나오면서 역사가 대중화되는 듯도 했다. 그러나 이들 역사전기소설들이 내뿜는 구국영웅의 압도적인 아우라는 애국계몽운동의 슬로건에는 적합했으나, 대중적 흡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국한문체로 창작되었다는 점은, 독자층을 한자 해독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에 한정해서 창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국한문 표기는 역사전기소설이 애당초 대중적 보급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나마 이러한 시도도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렸다.

3) 차혜영, 『1930년대 <월간야담>과 <야담>의 자리』, 『1930년대 한국문학의 모더니즘과 전통연구』(김은샘, 2004);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공임순, 「재미있고 유익하게, ‘건전한’ 취미독물 야담의 프로파간다」, 『민족문학사연구』, 34(민족문학사학회, 2007).

그러다 1920년대 많은 신문과 잡지들이 속속 창간되면서, 역사물을 위한 공식적인 담론의 장이 부활했고, 이를 배경으로 '전기(傳記), 사담(史談), 전설, 비사(秘史), 기인기담(奇人奇談), 애화(哀話), 애사(哀史), 사화(史話), 야담' 등의 다양한 역사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조인물약전(李朝人物略傳), 조선사개강(朝鮮史概講), 조선사연구초(朝鮮史研究抄), 조선사(朝鮮史), 조선상고문화사(朝鮮上古文化史)' 등 그 이름만으로도 역사 연구의 저작됨을 알 수 있는 글들에서부터, '사상(史上)의 로만쓰, 사화(史話), 사담(史譚), 야사(野史), 이면사(裏面史), 측면사(側面史)' 등의 표제어가 붙은 글들이나, 『마이태자』·『임거정전(林巨正傳)』·『단중애사』·『젊은 그들』·『대도전』 등의 역사소설에 이르기까지, 정사와 야사, 논문과 소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역사물들이 연일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라 『별건곤』, 『한빛』, 『삼천리』, 『조광』 등의 잡지들에서도 다양한 양식의 역사물들이 발표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중 『별건곤』은 다양한 표현전략을 동원하여 다채로운 양식의 역사물들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창작야담'으로 오해받기도 하는<sup>4)</sup> 「지하국방문기」(1927.3)는 몽유록의 전통과 풍자적인 글쓰기를 동원, 과거의 위인들을 현재로 소환하여 당대 문제를 풍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재미있는 작품이다. 또한 「드면綠」(1927.7), 「대수양군 아세아 정벌기: 개작통국통감」(1927.8) 등도 창작야담으로 오해받기는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가정을 통해 실패한 역사를 성공한 역사로 대체시킨다는 점에서 '가상역사, 대체역사'의 시원으로 논의되는 게 타당할 듯하다.<sup>5)</sup> 이외에도 '기인기사록(奇人奇事錄), 천하괴담, 기인편담' 등 주로 기인들의 행적들을 중심으로 쓰인 글들은 '20세기 야담' 운동의 전사적(前史的) 형태로 주목할 만하다.

1920년대 일어난 조선학 열풍의 분위기 속에서 다양 다종한 역사물들의 보급되

4) 이경돈, 앞의 논문, 272~276쪽.

5) 「드면 綠」은 '그때 이리 했으면 조선이 어찌 되었을까'라는 가정 하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대원군의 쇄국정책, 갑신정변, 동학운동' 등의 역사적 실패를 반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상역사물, 대체역사물'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수양대군이 유자광 등이 주동한 정부번복(政府顛覆)의 음모(陰謀)에 수양이 무고하게 연루되었다가 풀려 난 후 자신의 부덕함을 자책하며 은퇴하였다는 내용에서 시작되는 「수양대군 아세아 정벌기: 개작통국통감」 역시, 만일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지 않고, 위대한 세종의 업적을 유지하는 데 힘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정 하에 구성되었다는 점이 대체역사물로 보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작품은 노골적인 대동아 공영론에 입각하여, 조선이 아세아총연맹의 맹주가 되어 태평양에서는 영군군함을, 인도양에서는 영·불·서삼국의 연합 군대를 격파시켜 황색인종의 무위(武威)를 만방에 알리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면서, 이로 인해 국민적 열풍이 만들어졌고, 역사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쇄매체를 통한 역사의 대중화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국한문으로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역사물은 한문을 해독할 수 있을 정도의 교양을 갖춘 독자층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훨씬 대중적인 한글로 쓰였다고 해도, 절대 문맹률의 수치가 높았던 당대 조선의 현실에서 인쇄매체를 통한 역사의 대중화는 한계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바로 식자층을 대상으로 한 역사 대중화 운동이 봉착한 한계에서 김진구에 의해 ‘20세기 야담운동’이 시작되었다.

김진구는 그 자신이 ‘조선 근대사’, 그 중에서도 ‘김옥균 전공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옥균 연구에 조예가 깊었다. ‘칠팔년 동안 총총히 돌아다니며 그의 유적과 행적을 속탐한 결과, 조선 사람 중 김옥균 연구로는 제일인’(《조선일보》, 1927.11.12)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 김진구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갑신개혁의 일화 및 이면사에 대한 저작들을 『별건곤』 등지에 발표하였으며, 동경에서 『고균 연구(古筠研究)』를 내기도 하였다.<sup>6)</sup> 그러나 글을 통한 역사의 대중적 보급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절감했을 김진구는 역사의 대중적 보급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했을 것이고, 그래서 찾아 낸 것이 ‘강화(講話)’, 즉 구연(口演)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김진구 그 자신도 밝혔듯이<sup>7)</sup>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일파의 신강담 운동이 모델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역사를 통한 민중 교화 운동’을 취지로 시작된 야담운동은 글이 아닌 말에서 먼저 출발했던 것이다.

### III. 야담대회의 시작과 대중적 변모 과정

#### 1. 야담운동의 시작, 역사 강연회로서 야담대회

김진구는 1927년 11월 23일은 자신의 집에서 ‘김익환, 이종원, 민효식, 신중현’

6) 임화, 「古筠傳 雜感」, 『삼천리』(1940.3). 金振九씨가 東京서 발행하던 「古筠 研究」라는 것도 있다.

7) 김진구, 「야담출현의 필연성(4)」, 《동아일보》, 1928년 2월 5일. 야담은 중국의 설서와 일본의 강담, 그 중에서도 신강담(堺利彦 一派의 신운동)을 끌어다가 長을 취하고 短을 보하고, 그 위에 조선적 정신을 집어넣어 조선적인 것으로 창설.

등을 모아 놓고 '조선야담사'를 받기하고,8) 그 첫 사업으로 12월 11일 '역사 야담회'를 개최한다. 원래 김진구는 자신이 구상한 야담 운동에 대해 '강담(講談)'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던 것 같다. 김진구는 '조선야담사'가 결성되기 바로 전인 1927년 11월 12일에 "조선에서 처음 시험인 강담회"란 타이틀로 '김옥균의 최후'라는 연제(演題)로 역사 강연회를 개최했다. 그 내용이나, 청강료를 받는 방식 등이 향후 '야담대회'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야담운동의 실체와 다르지 않다.9) 그럼에도 이후에 강담이란 용어 대신 철저하게 야담이란 용어를 내세웠던 것은 아마도 양건식이 1927년 11월 15일 《중외일보》에 기고한 「강담과 문예가」란 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조선에도 강담이 시작된다 한다...보도에 의하면 김진구군이 故金古筠居士의 사적을 일본의 강담을 번져 처음으로 口演한다는 것이다. 강담?이라는 것이 그러면 조선에는 업섯든가? 아니 잇섯다. 재래 조선에는 고담쟁이라고 이악이를 잘하는 사람이 잇섯다. 일본의 강담이라는 것이 즉 이 고담쟁이다...다만 그 고담쟁이가 사령이 죠케는 하나 넙우 상식이 업서 과장을 심히 함으로서 事實을 事實 갖지 아니하게 듯게 하는 폐가 잇섯...문예가의 손으로 잘 다듬어 놓는다면 演者부터 감사하게 녀길 것...팔봉에게 붙잡히어 이런 조리업는 말을 늘어 노핫지만 강담에 대하여는 벌서부터 생각한 바 잇는 터에 김군이 시험한다는 말을 듯고 반갑게 생각하여 한마디 한 것이다. 당초부터 김군과 나와는 일면식도 업서 누군지 모른다...이왕 운동을 일으키는 마당에 강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귀 췌스면 조치 안흔가 한다. 강담이란 말은 일

8) 김진구, 「야담출현의 필연성(1)」, 《동아일보》, 1928년 2월 1일.

9) 《조선일보》, 1927년 11월 12일. 한창 구라과의 자본주의가 동아전국을 뒤덮어 들어올 때에 조선에서 제일 먼저 뿌르조아 민주주의를 수입하려고 자각한 고 김옥균씨가 당시 국가민생을 건지고자 하는 만반의 경륜을 품었으나 당시 잠 깃히 들은 민중의 향응을 잊지 못하여 혹 일본의 고해절도에서 강개불우의 생활을 보내기도 하고 혹 남의 나라 선각자와 팔을 잡아 조선 사람도 남과가티 살리려 하고 총총히 다니다가 한업는 원한을 가슴에 품은 채로 상해 동화양행 루상에서 반동아(反動兒) 홍중우의 특혈포에 피를 뿌리고 넘어지든 그 일생은 생활 그것이 한 시(詩)이요 사극(史劇)인데 일즉이 씨의 위인과 성격에 대하여 만흔 공명을 가진 학보 김진구씨는 과거 칠팔년 동안 총총히 돌아다니며 그의 유적을 찾고 행적을 속탐하여 조선 사람 중 김옥균연구로는 제일인이라는 말을 듯는데 오는 십삼일 밤 일곱시 반에 김옥균전집간행회 주최로 김옥균씨의 최후라는 연제로 조선에서 처음 시험인 강담회를 열 터인데 보통 오십전, 학생 삼십전의 청강료를 바들 터이라더라.

본에서 직수입된 것이오 중국에서는 이를 設晝라고 하니 우리 조선에는 고담이라는 진부한 말은 말고 다른 적당한 말이 업슬가.

‘양백화’란 필명으로 당대 여러 매체를 통해 중국 문예물을 끊임없이 번역·소개한 양건식은 이 글을 통해 “조선 고유의 강담은 발달은 고사하고 시대를 잘못 만나 없어지고 듣지 못하는 이때 돌연이 김군이 이를 시작한다 하니 매우 조흔 일”이라며 김진구의 시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조선야담사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야담운동을 전개하면서 김진구 자신이 야담을 “일본의 강담과 중국의 설서를 절충하여 조선적으로 건설”한 새로운 술어임을 밝혔기 때문에(《동아일보》, 1928.1.31), 연구자들은 20세기 야담의 탄생과 관련해서 일본의 강담과의 관련성에 주목해 왔다. 하지만 위 글에서 양건식이 지적했듯이 강담이란 방식은 조선 재래로부터 존재해오던 고담쟁이, 즉 ‘전기수의 전통’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가 보기에 전기수의 전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상식이 없고 과장이 심해서 사실을 사실 같지 않게 만드는” 내용에 있었다. “모순과 과장을 일삼아 사실을 너무도 무시하는” 내용을 “문예가의 손으로 잘 다듬어” 놓는다면 이것이 곧 양건식이 “벌서부터 생각”했던 ‘강담’의 바람직한 모습이 된다. 그런데 바로 조선의 첫 시험으로 시도한 김진구의 강담이 이러한 양건식의 기대에 부응했던 것이다. 고담쟁이의 말이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과장과 모순으로 일관된 것에 불만이었던 양건식에게, 김옥균의 사적에 충실한 김진구의 강담은 바로 양건식 구상했던 조선식 강담의 체현이기에 충분했다. 김진구는 양건식의 글에서 그가 자신과 동일한 구상을 하고 있었음을 읽어냈고, 이 글에 상당히 공명한 듯하다. 때문에 일면식도 없었던 양건식과 의기투합해 그를 ‘조선야담사’에 간사로 영입했던(《중외일보》, 1927.12.7)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양건식의 제안대로 일본의 용어를 대신하고, 또한 고담이라는 진부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용어를 모색하던 중 ‘직업적인 설서가, 즉 전기수의 전통’과 관련 있었던 야담이란<sup>10)</sup> 말을 찾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야담이란 용어를 선택한 김진구는 또 다른 고민에 접하게 된다. 자신 있게 야담이란 술어가 ‘오인(吾人)의 창작’이었음을 선언하였으나, 그도 알고 있듯이 이미

10) 임형택, 『18·9세기 ‘이야기꾼’의 소설과 발달』, 『고전문학을 찾아서』(문학과지성사, 1976).

『어우야담』이나 『청구야담』 등의 서책이 옛날 조선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진구는 ‘근거 없음’을 이유로 들어 옛날 야담과 자신이 창안한 야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한다. 결국 20세기의 야담은 옛 조선의 야담과 표현만 동일할 뿐, 그 함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조선 시대 야담과 결별을 선언한 김진구가 자신이 제창에 “20세기 신술어” 야담에 강연회를 통한 역사의 보급이라는 계몽운동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진구는 그가 20세기 야담을 자신의 ‘창작’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야담사’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야담대회’란 이름으로 역사 강연회를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그 첫 대회가 ‘신춘야담대회’란 제목으로 1928년 2월 6일에 열렸다. 이에 동아일보사에서는 홍보에 상당한 공력을 들인다. 그에 보답하듯 신춘야담대회는 성공을 거두고, 이후 ‘일반 시민들의 열렬한 요구’에 의해 전국 순회강연에 접어들게 된다. 김진구가 창안한 야담의 출발이 역사 강연회였다는 사실은 야담대회의 레퍼토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라! 들으라! 우리 조선에서 새로 창설된 민중예술=그리고 민중오락인 야담  
대회를 들으러 오라! 그리하여 우리는=정신이 극도에 굶주린 우리는 이것을  
들음으로써 정신의 양식을 구하라! 연으라! 동양풍운을 휩쓸어 일으키든 혁명  
아들의 포연탄우 가운데서 장쾌한 활약을 하든 이면사의 사실담을 들으라!  
동양풍운을 휩쓴 동학란(이돈화), 한말호걸 대원군(권덕규), 이흥장과 이등박  
문(김익환), 김옥균왕국(김진구)

1928년 2월 6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제1회 야담대회의 광고문이다. 임형택이 지적했듯이 ‘차라리 학술강연회’처럼 보일 정도로, 그 주제가 ‘동양 삼국을 넘나드는 근대 혁명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sup>11)</sup>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진구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은 ‘갑신정변을 중심으로 한 그때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저간의 사정은 야담운동의 1년을 회고하는 그의 글(《조선일보》, 1929.12.12~21)에서 확인된다. 김진구는 이 글에서 “야담의 재료”를 “근대사”에서 선택한 이유를 “천년고대의 그것은 너무 진부한 감이 있어 대중의 머릿속에 그다

11) 임형택, 앞의 논문(1996), 57쪽.

진 신신하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었기에, “현실을 지배하는 근대사 중에서도 최근의 것”을 선택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야담대회의 프로그램은 김진구의 기획에 따라 주로 근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야담대회의 프로그램만을 정리해 본 것이다.

- 손문 황흥 처음 악수의 막(김익환), 만고충기 계월향(이현숙), 한일호걸 대시합의 막(김진구)—1927.12.10.
- 임오군란과 명성황후(김익환), 오성과 한음(김진구), 만고 왜남아 홍길동(이성환)—1928.4.5.
- 구한국 시대의 궁정역사(유한익)—1928.6.9.
- 기상천외 대도적(이성환), 일본풍속만담(김진구), 薩萬教와 조선(도진현)—1928.7.4.
- 김옥균의 학창시대(정현숙), 일한호걸 대시합전, 오성의 豪放, 전봉준을 차저운 사람들(이상 김진구)—1928.9.9.
- 한일청 삼국을 휩쓸던 임오군란(김익환), 광무 초년의 쇄국정치(김성), 김옥균의 3일천하(김익환), 민중운동 동학(김성)—1928.9.10.
- 김홍집 내각과 한국정계(김익환), 두자춘과 금항아리(윤백남), 임난여걸 黑匏장군(김진구)—1928.12.7.
- 호협 이오성, 동양호걸의 대쾌투(이상 김진구), 만담 몽금(윤백남)—1929.5.2.
- 오성과 한음. 일한호걸 대시합전, 劔頂의 충혼, 김옥균의 최후, 임란 여걸 흑포장군(이상 김진구)—1929.11.8.

윤백남의 이름도 간혹 눈에 띄지만, 단연 돋보이는 것은 김진구이다. 그의 레퍼토리를 보면 “명치유신 당시 팔을 썬넛든 일본 호걸과 망명 중에 있던 김옥균 간의 당시 정세”를 주제로 한 ‘한일호걸의 대시합’에서부터, ‘전봉준을 차저운 사람들, 김옥균의 최후’ 등 ‘한말의 정세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로 넘어가서도 김진구의 야담은 김옥균이 살았던 한말의 정세와 관련 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야담운동을 출범시켰을 때의 각오처럼, ‘현실을 지배하는 최근대’의 역사를 민중에게 알려 그들을 교화하겠다는 의지를 야담대회를 통해 실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만고충기 계월향’이라든가 ‘임란 여걸 흑포 장군’<sup>12)</sup> 등

임란 시의 여성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확장시켰을 때도, 그의 계몽의지는 관철되고 있다. 그 이외의 김익환, 유한익, 김성의 야담에서도 역사를 통한 민중의 교화라는 야담운동의 취지가 실천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20세기에 창안된 '신술어' 야담의 정체는 역사의 대중적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 혹은 강연회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김진구의 구상에서 『청구야담』, 『어유야담』 같은 옛날 조선의 서책들이 있을 자리는 없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어데 별노 근거도 없는 것을 엉터리로 적어 놓은” 것으로 규정하고(《동아일보》, 1928.1.31), 야담의 전통과의 결별을 선언했던 것이다.

## 2. 야담대회의 대중적 확산, '일시의 오락'으로서의 인기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야담대회의 판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윤백남의 등장에서 그 조짐을 감지할 수 있다. 그의 모습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1928년 12월 9일 야담사 창립 1주년 기념 야담대회에서이다. 이때 그는 중국 이야기인 '두자춘과 금항아리'라는 연재로 참여했는데, 이 내용은 조선의 역사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 다음 해 5월에 다시 '만담 몽금'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윤백남은 만담가로 야담대회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 9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동아일보》에 『담화루만담(耽奇樓漫談)』을 연재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윤백남은 만담가로서 야담 무대에 섰다는 추정에 힘을 보탠다. 『담화루만담』 연재가 끝나자마자(1930년 1월 16일부터) 이번에는 역사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대도전』이다. 『대도전』의 대대적인 흥행으로 소설가로서 이름이 높아진 윤백남이 야담대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야담가로서 윤백남의 명성도 함께 높아진다.

□ 천하 대기인 정수동(김진구), 연산조의 기결 박장공(윤백남), 한말 惑星 민영익(김진구)—1931.3.6.

12) '임난여걸 黑龍장군'은 그 제목에서 '의병장 김천일의 아내'의 일화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일화는 『대동기문』에 수록되어 있고, 『월간야담』, 32호(1937.5)에 「낮잠 자는 안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 騎牛老翁, 牧丹登記(이상 윤백남)—1931.9.17.
- 연산군 비화, 여인군상, 세조일화(이상 윤백남)—1931.10.1.
- 한말 폐정과 대원군 英斷(김진구), 佛國民族性漫談(이창섭), 현재 천하장사 昔日談(김진구)—1931.11.29.<sup>13)</sup>
- 동양호걸 대시합전, 김옥균선생의 최후(이상 김진구)—1932.5.14.
- 연산군비화, 세조일사(이상 윤백남)—1933.11.3.
- 야담=인조반정과 姜沆, 만담=양심(이상 윤백남)—1933.11.3.
- 최영의 꿈(권덕규), 연산조(윤백남)—1934.1.9.
- 李長坤의 반생, 德不孤(윤백남)—1935.3.8.

물론 중국의 것인 ‘목단등기(牧丹登記)’나 ‘만담 양심’ 등도 눈에 띄지만, 1931년 3월 이후 열리는 윤백남의 야담대회는 ‘연산조의 기결 박장군, 연산군 비화, 세조일화’ 등으로 비로소 야담이란 이름에 어울리는 레퍼토리로 구성되기 시작한다. 향후 윤백남 야담대회의 프로그램은 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sup>14)</sup> 1931년 5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남조선 순회 사담’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아일보》에 실리는 야담대회 기사는 ‘윤백남’의 이름을 내건 야담대회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동아일보사의 후원 아래 윤백남은 당대 ‘야담의 패왕’으로 군림해간다.<sup>15)</sup>

---

13) 「야담대회」, 《조선일보》, 1931년 11월 29일. 한말 폐정과 대원군의 영단(英斷)이라는 제목은 량반 호족의 잔인무도를 썩어 나리고 미신굴과 협잡배를 소탕하고 용장하고 씩씩한 국민을 만들기 위하여 무예를 장려하며 군대를 양성한 대원군의 애국심의 발로를 여실히 그려내는 것...현존 천하장사의 석일담(昔日譚)이란 담제는 윤영렬 옹의 안성군수 시대부터 포도대장시대까지의 신출귀몰한 기지와 용력을 비롯하여 리규완씨의 갑신개혁 당시로부터 일본망명까지 의협담옹을 통쾌하게 설파. 청담료는 십오전 균일, 본보 독자는 십전.

14) 多言生, 「秘中秘話, 百人百話集」, 『별건곤』(1934.1). 김진구와 윤백남 량씨는 누구나 다 아는 야담 대가다. 그런데 김진구씨는 김옥균(金玉均) 이야기를 엮거나 만히 하얏던지 눈을 감어도 김옥균이 환이 보인다고 하더니 윤백남씨는 연산조(燕山朝) 이야기를 또 그러케 오래 두고 복습을 한다. 그의 눈에도 아마 연산주가 보기 쉬울 걸.

15) 일반적으로 1930년대에 들어 김진구가 일제의 탄압에 견디다 못해 야담대회를 윤백남에게 넘기고, 야담계에서 은퇴한 후 야담운동이 통속적으로 변질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윤백남이 야담가로 부상한 이후에도 야담가 김진구의 명성은 여전했다. ‘윤백남야담대회’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최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1930년대 들어서 개최되는 야담대회에서 김진구의 이름을 찾기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1934년 6월호

“문예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흥미위주”로 『수호지』 번역에 임했던 (《동아일보》, 1928.4.29) 윤백남의 입장과 민중 교화의 차원에서 야담운동을 시작했던 김진구의 성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계몽적 입장을 견지한 김진구의 야담 대회보다는 재미를 앞세운 윤백남의 야담에 대중적 관심이 집중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야담대회는 무료강연이 아니었다. 30전에서 15전의 입장료를 내야지만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흥행물이었기에 대중들의 기호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윤백남’이란 타이틀을 내건 야담대회가 전국방방곡곡에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윤백남의 야담이 가진 매력이 당대 대중들의 기호에 부합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야담의 대중적 저변은 확대되었고, 야담대회는 역사 강연회이기를 포기하고 ‘일시의 오락’으로 성향이 변하기 시작한다.

야담의 대중적 저변이 확대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매체로 라디오를 꼽을 수 있다. 1926년 11월 30일에 설립된 경성방송국의 초기 방송은 조선어 프로그램과 일본어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선 청취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청취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어 방송에서 조선어 방송을 독립시키게 된다. 1932년 드디어 일본어 방송과 별도로 조선어 방송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라디오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다. 이때 초대 조선어 방송 과장으로 초빙된 이가 바로 윤백남이다. 이미 야담대회를 통해 야담가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던 그가 야담을 프로그램으로 편성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선어 방송의 시작으로 야담대회의 현장은 이제 라디오 스튜디오로 확대되고, 청취자는 굳이 야담대회가 열리는 극장으로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야담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일시의 오락으로서 야담의 대중화는 급속한 속도로 전개된다.

라디오를 통하여 야담의 인기가 조선 안에 꼭 드러찬 지는 이미 오래…조선서 야담하는 분으로 가장 유명한 분들은 신정언, 유추강, 현철. 삼 연사의 야담대회. 6일 밤 동양극장. 1등석 대인 70전, 소인 60전. 2등석 대인 50전, 소인 40전, 애독자는 20원 할인[《조선일보》, 1935년 12월 4일].

---

『별건곤』에는 ‘윤백남씨와 김진구씨가 제일 소중히 역이는 야담의 연재’를 원하는 독자의 글이 실릴 정도로 야담가로 김진구는 아직까지는 건재했다.

야담가로서의 신정언의 인기는 『신정언야담집』이란 단행본이 출간되었고, 여기 저기 열리는 야담대회에 그가 초빙되는 데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월간야담』 등의 잡지나 신문에 꾸준히 야담을 발표하면서 윤백남의 뒤를 이은 스타 야담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다. 위 인용문은 신정언이 야담대회의 무대가 아닌 라디오를 통해 데뷔한 야담가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야담대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야담이 방송을 통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야담은 역사 강연회이기를 포기하게 된다. “조선 건국 초기 이성계의 무용담이나, 한양 도읍과 관련된 아기자기한 이야기, 왕의 사생활에 숨은 비화, 사회와 당쟁 및 달콤한 연애 이야기” 등 “소설 이상의 재미”를 담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sup>16)</sup> 연일 라디오에서 방송되는데, 굳이 재미도 없는 ‘한일청 삼국을 휩쓸던 임오군란, 광무 초년의 쇄국정치, 김옥균의 3일천하, 민중운동 동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무료 강연이면 모르겠지만, 돈을 내고 관람해야 하는 유료 강연인데 대중들이 계몽보다는 재미를 선호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김진구는 야담대회를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낙어(落語: 라쿠고, 만담의 기원)나 박춘재의 재담’과는 다른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sup>17)</sup> 하지만 1935년에 이르면 이런 그의 의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만담과 야담을 구별 못하는 이가 생길” 정도로 야담과 만담의 경계는 무화되고, 다만 야담은 ‘주로 야사를 중심으로 한 고담(古談)’에서, 만담은 ‘주로 현대를 중심으로 한 실담(實談)’에서 그 내용을 취재하는 점에서 구분될 뿐이었다.<sup>18)</sup> 즉 이야기의 소재가 과거의 것이냐 현재의 것이냐를 기준으로 구분될 뿐, 야담과 만담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오락물을 많

16) 湖岩, 「흥미진진한 신정언 야담집」, 《조선일보》, 1938년 11월 4일. 신정언의 야담은 천하일품이다. 어린이나 늙은이나 정언의 방송이 있을 때는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재미있게 듣는다. 그의 야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야담을 모아 단행본으로 한 신정언야담집이 이제야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이태조의 化家爲國하던 金尺夢과 그 超越的 武勇談과 한양 서울터를 잡을 때 아기자기한 傳說...第二篇에 거둔 月下岩上의 周易과 第三篇에 거둔 五十老鵠의 科擧 가튼 것은 李朝文運의 황금 시기를 대표한 成宗 이면생활에 숨은 일중 秘話...이조 사회 쟁정에 관한 이야기와 이박에도 달콤한 연애이야기 가튼 조선정취가 흐르고 흐르는 재미 있고도 점잔흔 야담이다. 야담이라 하지만 그 내용을 따져 보면 傳說 民譚으로 내지 史話까지 알마치 석겨서 알기 쉽고 구구하게 맨든 소설 이상의 재미... 인문사, 정가 1원 50전.

17) 김진구, 「야담운동의 1년 회고」, 《조선일보》, 1928년 12월 9일.

18) 신불출, 「응변과 만담」, 『삼천리』(1935.6).

은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윤백남 야담대회'와 '신불출 만담대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면서 경쟁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담과 만담이 한데 묶인 대회가 개최되는 등, 야담은 만담과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오락물로 그 주가를 높여가고 있었다.

오락물이 통속화의 길로 빠져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20세기 야담은 통속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야담대회나 라디오 야담, 즉 구연적 방식으로 실현되는 야담이 통속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1935년 이후의 야담대회의 프로그램은 물론 라디오 야담의 내용에서 통속성을 확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sup>19)</sup> 비록 야담이 “역사지식을 통속화(通俗化)” 식힌 “일시의 오락”이기는 했으나 “고사(古事)의 보급으로” 역사를 “보급식히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sup>20)</sup> 야담의 노골적인 통속화는, 구연적 방식이 아닌, 또 다른 채널을 통해 생산되는 야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19) 1930년대 경성방송국의 야담 프로그램은 mbc 라디오의 장수 프로그램인 '전설 따라 삼천리'와 유사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야담방송의 내용들이다 1938년 9월 10일 오후 9시, 大人妙笑, 유추강: 이조판서 이모(李某)는 서리(書吏) 안모(安某)의 의복이 너무 남루함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네 일년 록이 五千량은 되는데 꼴은 저다지 흉하게 하고 단기느나」하고 무릎습니다... 서리는 과연 어떠한 대접을 하였는지? 그리고 서리 안모의 일생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드러보아 주십시오//1938년 9월 11일 오후 8시, 活佛, 유추강:...정영석이 순조때에 어사를 배명하고 양호 지방에 갔을 때입니다...어사 내심에 필경코 그 자가 도적의 두령임이 틀림없다하고 내탐을 하라고 일부러 파입폐복을 하고 김진사를 차겼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어떠하였는지 의문의 인물 김진사는 후에 흥경래란에도 큰 공을 세운 이지만 영영한 기인으로 아릿을 뿐 그는 본을 모른다고 합니다//1938년 9월 20일 오후 9시, 義狗塚, 신정인. 지금도 평안남도 용강군 토성면에 남아 있는 의구충은 오늘날까지도 후세 사람들에게 의로운 개의 미담을 말하고 있습니다...오늘 밤에는 취해서 쓸어진 주인을 불의 위난에서 구해냈다는 이야기는 간단히 하고 그 후에 그 개를 '소위 개는 다섯 해를 두지 안는'다고 해서 기특한 개인 줄 알면서도 그 미신으로 해서 죽여 버리려고 할 때...개를 죽이지 안코 살여더니만 그후 다시 독사의 화로부터 주인을 구했다는 후일담을 할 나고 합니다. \*이상 야담 방송 내용은 해당 날자 《조선일보》 라디오 방송란에 소개된 것을 참조했음.

20) 『삼천리』(1934.6). 歷史知識을 通俗化 식혀 보급식히는 非藝術的 方면의 노력도 버릴 일은 못된다/《조선일보》, 1936년 1월 31일. 일시의 오락뿐 아니요 古事의 보급으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인정 받는 야담.

#### IV. 야담잡지의 출현, ‘건전한’ 혹은 ‘불온한’ 야담의 두 얼굴

##### 1. 야담잡지의 출현, ‘취미독물’ 야담의 인기

흔히 20세기 야담은 역사소설의 완성을 위한 과도적 양식으로 논의된다. 하지만 『월간야담』이 창간된 1934년 당시의 문단은 “『단중애사』, 『임거정전(林巨正傳)』, 『윤현궁의 봄』 등 역사를 원재(原材)로 한 소설이 전면(全面)을 덮고” 있는 ‘기이(奇異)한’ 형국이었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야담가로서 윤백남이 명성을 얻은 것은 이미 그가 역사소설가로 이름을 얻은 직후의 일이기도 했다. 즉 야담의 번성은 이미 『마이태자』의 성공으로 역사소설의 상품성이 검증된 이후의 일이었다. 『마이태자』의 상업적 성공은 ‘사상의 로만쓰’와 같은 기획물의 연재(1929.9.24~1930.4.16)를 가능하게 하였다. 매체, 특히 신문을 통해 발표되었던 수많은 역사물 중에 국문으로 발표되었던 것은 역사소설과 이 ‘사상의 로만쓰’라 이름 붙여진 기획물이었다. 즉 다른 역사물들이 한문 해독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을 겨냥했다면, 역사소설과 ‘사상의 로만쓰’는 이보다는 더 대중적인 국문독자들을 겨냥한 기획이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발표된 글들은 “혁거세와 알영, 동명성왕과 같은 정사 중에 주요 인물로부터, 설랑과 가실, 공주와 온달 같은 반전설적(半傳說的) 인물에 이르기까지 삼국사(三國史) 중 주요하고 소설적 흥미 있는”<sup>21)</sup> 것들이었다. 이중 삼국시대편만 골라 이은상이 『조선사화집』(1931.3)이란 단행본으로 출간될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흥행에 성공했다.<sup>22)</sup> ‘사상의 로만쓰’와 같은 기획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조선’이나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규등사담’ 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속되었다.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김현감호」 등 『삼국유사』의 이야기를 원안으로 하는 ‘사상기담(史上奇談, 김동인)’이나, 유명한 ‘일타홍의 이야기’가 원안이 된 「하방천기(遐方賤妓)」(신정언)에서 출발한 《조선일보》의 ‘연속야담’ 역시 ‘사상의 로만쓰’와 동일한 성격의 기획물이다.

21) 이광수, 「조선사화집, 이은상씨의 近著를 讀하고」, 《조선일보》, 1931년 3월 30일.

22) 「서정 시장 조사기, 한도·이문·박문·영창」, 『삼천리』(1935.10). 『조선사화집』은 출판된 이래 모두 3천부를 돌파하는 호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이때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이광수의 역사소설들로 각기 4천부가 넘게 팔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기획물들의 성격이 바로 20세기 야담의 내용을 구성하는 실체라는 점이다. 결국 20세기 야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 고려사, 포은집, 수이전, 청구기화, 어우야담, 지봉유설' 등의 "사승(史乘) 중에서 소설적 흥미 있는 것을 골라 사적(史蹟)의 본간을 상치 않는 정도에서 윤색을 가한 것"으로<sup>23)</sup> 그 경계를 확정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20세기 야담의 경계는 '조선 후기 시정 문화의 출현을 배경으로 이 주변에서 떠돌던 다채로운 삶의 모습들을 한문으로 기록한 단편의 서사물'로 규정되는 야담을 포함하면서, 이를 훌쩍 뛰어 넘어서게 되었고, 심지어 전설과 민담(民譚) 등의 구비문학에까지 뻗어 가게 된다.<sup>24)</sup> 결국 글로 기록되었든 혹은 말로 전해져 오든, 옛날의 이야기 중 '소설적 흥미'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20세기 야담의 저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화는 소화 7년(1932년)부터...야담은 어떤 창작소설과 가치 새로 만든 것도 아니요 또는 고담과 가치 떠도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관이 집필하여 만든 정사(國史)와 자매관계가 있는 야사 중에서 취미 있고 유익한 어떤 편을 골라서 말로 또는 글로 쓰기도 한 것...조선의 야담 문헌으로써 가장 오래되고 내용이 오래 된 것은 삼국유사. 그 다음으로는 고려시대의 파한집, 역옹패설 등 수백종이 있고 이조에 들어서는 명조조 유명한 문인인 유명인의 저작인 어우야담 동야회집 대동야승 동경잡기 등...최근으로는 이공익씨의 연려실기술을 합하여 이조시대의 야담문헌만도 2백 70여종으로 그 책수는 수천의 다수에 달합니다...그런데 距今 7~8년까지는 이런 문헌이 각기 창고에 감추어 있슬 뿐이요...이것이 먼저 여러 사람 아페서 말로 들리게 된 것은 거금 10수년 전에 김진구씨가 고 김옥균씨의 一生記를 口演한 것이 잇섯는데 김옥균전기는 현대인물임으로 아직 야사 중의 사실은 아니엇습니다 그런데 소화 7년 경에 윤백남 신정언 양씨가 비로소 방송국 마이크를 통하여 그 야사문헌을 방송하게 된 것이 오늘날 야담계의 제일보[《조선일보》, 1940년 3월 13일].

10여년의 시간을 거쳐 진행된 20세기 야담운동의 연원과 진행과정이 일목요연

23) 「사상로만쓰 발간」, 《동아일보》, 1931년 3월 21일.

24) 20세기 야담의 경계는 비단 '조선'에만 머물지 않고, 중국, 일본 및 페르시아, 인동 등의 세계적 인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중국야담'에 대한 인기는 '조선야담'에 버금갈 정도여서, 『월간 야담』에는 창간호부터 끊이지 않고, 중국의 이야기를 실고 있다.

하게 정리되어 있는 글이다. “순연히 한문으로 된 까닭”에 오랫동안 “창고에 감추어져 있었던 야담문헌들이 말과 글로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면서” 야담의 현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설명은 20세기 야담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정사와 야사 중에 취미 있고 유익한 어떤 편을 골라 말로 또는 글로 쓰기도 한 것”, 곧 한문 저작의 한글화가 바로 20세기 야담의 실체였던 것이다. 지금 20세기 야담 운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 강조되고 있는 김진구의 위상에 비해, 당대 야담 운동에 있어 김진구의 역할은 정말 소략하게 언급되고 있다. 역사를 보급하기 위한 민중 교화의 운동으로 구상된 김진구의 기획은 ‘야담’이란 말이 20세기에 널리 유행하게 되는 계기로 인정될 뿐이다. 그 대신 야담운동의 쇠퇴 혹은 통속적 굴절화의 ‘원흉’처럼 여겨지고 있는 윤백남을 현대 야담의 시조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화 7년 경(1932)에 윤백남 신정언 양씨가 비로소 방송국 마이크를 통하여 그 야사문헌을 방송하게 된 것이 오늘날 야담계의 제일보”라는 구절에서 20세기 야담의 보급에 있어 라디오 방송이 미친 영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야담대회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야담의 상품성을 출판 자본이 놓칠 리 없다. 그 결과 『월간야담』(1934.10 창간)과 『야담』(1935.8 창간)이라는 동일 성격의 잡지가 연달아 창간된다. 동시에 동일한 성격의 잡지가 출간되었으나, 두 잡지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정도로, 야담의 인기를 날로 성장해 갔다. 김동인, 전영택, 현진건 같은 ‘예술적’ 소설가들도 돈벌이를 위해 야담 잡지를 통해 야담을 발표할 정도로, “도로혀 다른 잡지들의 판매부수를 야담 잡지가 능가”하면서<sup>25)</sup> 1930년대 한국 사회에서 야담은 잘 팔리는 문화상품으로 자리하게 된다.

대중문화 분야에서 야담은 매우 각광받는 존재였지만, 문학의 권역에서는 아예 배제된 존재였다. 독창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는 근대 문학적 관점에서 “사료가 되는 야사를 토대로 삼아 가지고 보통 담화식으로 그 뜻을 설명”<sup>26)</sup>하는 야담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미 있는 한문 저서를 한글로 재생해내는 것에

25) 천태산인, 「야담의 기원에 대하여」, 『비판』(1936.4).

26) 신정언, 『포양기』의 서두, 《조선일보》, 1936년 4월 30일. 야담은 순연한 역사도 아니요 소설도 아니요 문학도 아니요 만담도 아니요 특히 역사 중의 한 종류가 되는 야사를 토대로 삼아 가지고 보통 담화식으로 그 뜻을 설명하게 됨으로 야담이라는 일흠이 붙게 되고 이것이 야담의 독특성...이제 우리가 일즉 듯도 보도 못하든 야담이라는 것을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게 된 것은 다행이 우리의 것을 새로 인식하는 실기가 터진 까닭.

불과한데다가, 말하는 투를 그대로 옮겨 적는 문체까지 야담은 예술적 양식이 되기엔 자격미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대 문학사에서 있어 야담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당대인들은 야담과 같이 흥미를 본위로 하는 가벼운 읽을거리들을 '취미독물'로 명명하면서, 문학의 권역에서 배제된 하위문화의 영역이 위치 지었다. 이에 대한 지식인들의 시선은 당연히 냉담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대 독자들은 취미독물에 열렬한 환영을 보냈고, 이에 힘입어 꾸준히 생산되었다.<sup>27)</sup> 대중 서사물로서 야담의 위치는 바로 여기이다.

## 2. 20세기 야담의 창작 방식, 불온한 취미독물과 건전한 취미독물

『월간야담』과 『야담』의 목적은 취미와 오락에 그 자체에 있다.<sup>28)</sup> 『월간야담』은 '실익'이라는 계몽성을 표방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포즈일 뿐이다. 『야담』은 아예 '옛 것을 복원하는' 목적을 철저히 재미에 두었다.<sup>29)</sup> 이제 역사를 통한 민중의 교화라는 야담의 목적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잡지에 실린 모든 야담에 대해 '통속적 굴절'이란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

20세기 야담의 기원이 『삼국유사』에서 시작하여 『연려실기술』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야담문헌'들에 수록된 '소설적 흥취'가 있는 이야기들을 한글로 복원하는데 있는 한, 원 텍스트와 복원 텍스트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은 '전대 야담의 주체의식'에서 벗어난 '통속화'라는 점

27) 이에 대해서는 천정환·이용남,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미」, 『민족문학사연구』, 30(민족문학사학회, 2006); 이경돈, 앞의 논문, 참조.

28) 《매일신보》, 1934년 8월 5일. 취미 오락 잡지 중 윤백남씨 주제로 월간야담이라는 잡지 발행. 동서 야승의 미담 일화를 소개. 대중에게 실익과 취미. 우습을 모르고 자라는 청년에게 감격과 새로운 힘있는 우습을 제공. 《조선일보》, 1934년 8월 15일. 새로 나오는 잡지 월간야담. 계유 출판사에서는 야담전집을 발간해야 수많은 독자를 포섭하고 있는 터이거니와 이번에 또다시 월간야담을 발행. 이미 8월 창간호가 나왔는데 쓸쓸한 우리 생활에 명량한 기분을 북돋아 주자는 것이 그 주요 목적.

29) 『야담』 창간호(1935.11). 문예창작, 옛말, 사화(史話), 일화(逸話) 등등에서 순전히 취미 있고 이야기로 될 만한 것을 편집의 방침으로 결정...이러한 옛 것의 복원은 당대 문장의 작업과는 달리 철저히 재미를 중심으로...창간호에 있어서도 다른 것보다도 가장 여러분께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삼국유사의 번역...삼국시절의 온갖 기쁨, 로맨스, 일화 등으로 분시 『삼국유사』는 역사적 가치보다는 문학(취미문학)적 가치가 높은지라.

에 맞춰져 있다.<sup>30)</sup> 그러나 『월간야담』에 수록된 야담들 중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이 원 텍스트에 충실하고, 이 경우 통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묘사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그 정도가 원 텍스트의 주제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통속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sup>31)</sup> 하지만 『월간야담』에 실린 야담들 중에는 매우 선정적이며 지극히 통속적인 것이 많은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양상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원전이 확인되지 않는 ‘창작 야담’들이란 점에서, 『월간야담』에 실린 야담들을 창작 방식에 따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세기 야담은 창작 방식에 따라 세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계열은 전대의 문헌에 충실한 야담들이다. 여기에는 전대 야담집에 수록된 원전을 충실하게 ‘문학적 문체’로 옮겨 놓은 「보은단 유래」(윤백남, 2호), 「일타홍과 일송에 얽힌 삽화」(신기일, 2호), 「남만선상(南蠻船上)의 상사루(相思淚)」(신정언, 6~7호), 「생보살의 월하불공(月下佛供)」(신정언, 8호), 「낮잠 자는 안해」(김초, 32호) 등이 속한다.<sup>32)</sup> 이외 「명사의 신필」(윤백남, 9호), 「홍덕왕과 앵무」(추희, 11호), 「김유신과 미기 천관」(최문진, 12호), 「충서(忠鼠)」(신정언, 15호),

30) ‘소설의 도움으로 출세한 우하형’의 이야기가 저본이 되는 「깨어진 물동이」(김동인, 『월간야담』 13호, 1935.10)를 원본과 비교해보면 ‘전체 즐거이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거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단지 우하형과 헤어져 있을 때 여주인공이 다른 남자와 살았던 행적에 대해 원본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해, 「깨어진 물동이」에서는 ‘더러운 몸’ 운운하며 궤절에 대해 자책하는 문맥이 삽입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임형택은 ‘김동인이 원작을 변조하여 궤절로 이야기를 엮어 낸 다음, 여자의 한번 실절은 만회할 수 없는 통한이라는 의미’로 제목에서 ‘깨어진’이란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원작을 변질’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임형택, 앞의 논문(1996), 80~82쪽]. 하지만 여자의 정절을 강조하는 문맥이 삽입되었다고 해서 이를 ‘상업주의로 빚어진 통속성’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1930년대 자유연애가 팽배되는 분위기와 맞물려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정조론’ 역시 만만치 않게 강조되고 있었던 당대의 분위기 때문에 원작에는 없는 정조론이 개입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깨어진 물동이’란 제목에 대해서도 작품 속 남녀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깨어진 물동이’에 있기에, 이를 제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도 있다[정부교, 앞의 논문, 213~214쪽].

31) 이에 대해서는 정부교, 위의 논문과 김준형, 「근대 전환기 <옥소선 이야기>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참조.

32) 20세기 야담과 이의 원전이 된 조선 시대 야담은 다음과 같다. 「보은단 유래」—‘역관 홍순안’의 이야기, 「南船上의 相思淚」—‘홍도이야기’, 「생보살의 月下佛供」—‘기생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한 노진’ 이야기, 「낮잠 자는 안해」—‘아내 덕에 이름을 날린 의병장 김천일’.

「황조의 노래」(박민수, 20호), 「압록강의 꽃」(홍훈, 21호) 등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원전의 서사구조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작품들이다.

두 번째 계열은 역사적 기록을 근간으로 여기에 허구적 상상력이 가미된 야담들이다. 「후백제 비화」(윤백남, 12호), 「사자수(泗泚水)에 어린 향훈(香魂)」(신정인, 2호~3호)을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신라 말, 후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후백제의 비화」는 농군이 자기 아들에게 백제 망국의 비화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바로 그 농군은 “백제 명족의 후예”인 아자개이고, 그 아들은 진현이라는 설정이다. 이어 왕위계승을 위해 위홍과 “추잡한 거래”를 했던 경문왕의 두 왕비, 그리고 공주(진성여왕)의 궁정 스캔들과 궁예와 진현(견훤)를 중심으로 한 후고구려와 후백제의 건국 과정에 대한 장황한 서술이 이어지고 있다. “복잡 다단한 당시의 일을 짧은 글로 물어화(物語化)한다는 것을 무리한 일”이라며 작가 스스로가 고백하듯, 작품의 구성력은 매우 험겁다. 하지만 신라의 멸망과 후고구려, 후백제의 건국에 관련된 야사들이 흥미롭게 얽혀 있어 읽는 재미는 상당하다. 이 작품에서 작가의 상상력은 파편적인 역사의 기록들을 하나의 서사 구조로 엮어내는 매개적인 기능을 담당할 뿐, 역사적 사실에 비교적 충실하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사자수에 어린 향훈」은 상상력에 비교적 더 많은 힘이 실린 작품이다.

“백제사담”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삼국사기』에 백제 멸망의 징조로 기록된 수많은 기변(奇變)들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작품은, “주색에 침혹”한 의자왕이 “신라의 절대미인인 쾌향옥녀(佩香玉女) 향랑(香娘)”을 빼앗아 오기 위해 신라와 전쟁을 시작했으며, 고구려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신라를 공격하면서 삼국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삼한통일’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완전하게 다른 설정으로, 상상력에서 나온 허구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허구적 세계가 순조때 김소행이 지은 한문소설 『삼한습유』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랑의 탄생과 그녀의 전생, 그리고 장차 “관하동자”의 배필이 될 것이라는 “동방대각불존”의 예언에서, 김유신이 백결의 거문고 연주를 이용해 백제군을 ‘사면초가’의 전술로 사기를 꺾어 버리는 내용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김유신이 “신라의 의렬부인 향랑”에게 자문을 구하는 내용 등은 『삼한습유』의 내용 그대로이다. 결국 「사자수에 어린 향훈」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여기에 『삼한습유』

의 허구적인 설정이 가미되어 만들어진 작품인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낙화암에서 몸을 던진 삼천궁녀의 시체들이 떠올라 사자수가 그녀들이 록의홍상으로 덮혀 있는 비극적인 장면으로 마무리 되는데, 작품의 제목인 ‘사자수에 어린 향훈’은 바로 삼천궁녀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상징한다. 이처럼 「사자수에 어린 향훈」의 중심 내용인 백제 멸망과 삼국 전쟁이라는 큰 일개는 역사적 기록에 충실한 편이다. 하지만 전쟁의 계기가 향랑이라는 미인을 탐하는 의자왕의 욕정 때문이라는가, 삼국 전쟁의 과정에 향랑이라는 여인이 큰 활약을 펼치다가 등, 세부적인 상황들을 구성하는 에피소드들은 역사와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이 작품의 상상력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러한 허구적 상황의 첨가로 인해 작품의 통속적인 재미가 배가된다는 사실이다. 긍정으로 배경으로 하여 한 남자를 둘러싼 자매 혹은 모녀의 추잡한 스캔들이나, 신라의 절대 미녀를 빼앗아 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왕의 황음은 독자들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자극적인 감각은 세 번째 계열인 창작 야담에서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성숙기에 있는 두 정남 처녀는 자리를 같이 하고 안저 잇스니 그들의 시선은 서로 서로 인생의 신비에서 신비를 끌고 왔단 갖다 하였다. …여자뿐 아니라 미듬성 있고 웅훈한 남성미가 잇슴을 깨다렸다. 그의 입술에는 뜻깊은 미소가 떠 놓고 수정 같은 추파는 룡덕의게서 썬나지 안었다. 아직 한번도 여성과 교제를 안해 본 룡덕이지만 남녀의 교제는 배우지 안어도 신비롭게 깨다라져서 과히 서투르지 안었다. 그들은 마음 속에 길이워 잇든 사랑의 화단이 팔쇠의 대다리로 쏘낙비를 맞게 되어 수색을 서로 지고 피고 마렸다. …그들 두 청춘 사이에는 끈으려도 끈을 수 없는 사랑의 굳은 매답이 매저졌다[허소석, 「죽교(竹橋)의 기연(奇緣)」, 6호].

「죽교의 기연」은 ‘이조 역대 왕 중 풍류왕’이란 이름을 얻은 성종 때를 배경으로 하여 기이한 운명으로 얽혀진 용덕과 선옥의 로맨스를 그려내고 작품이다. 주인공들이 죽교(竹橋)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되는 과정이나,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붙어 있는 원귀와 한바탕 싸움을 벌여만 했던 사정들이 미스터리 하게 얽혀 있어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결국 용덕과 선옥은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

고, 첫눈에 이끌린 두 남녀는 작품의 말미에 사랑으로 맺어진다. 성숙기에 있는 두 남녀는 만나는 순간, 남녀의 교제에 대해 배운 바는 없었으나 신비롭게 깨닫는 바가 있게 되어, 처음이었으나 서투르지 않게, 여러 번 마음 속 사랑의 화단 속에서 서로 피고 지면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매듭을 맺고야 말았던 것이다. 우회적으로 남녀 간의 성애를 묘사하고 있는 매우 에로틱한 장면이다. 이러한 서사에서 '성중 때'라는 역사적 공간은 어떠한 실제적 의미도 확보하지 못한다. 그저 남녀의 기이한 로맨스가 펼쳐지고 있는 어느 불특정한 과거의 한 때라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결국 이 작품의 목적은 과거를 배경으로 남녀가 결합하게 되는 과정으로 흥미진진하게 엮어 가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여 야담 잡지를 계속 구독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주의와 결탁한 흥미본위의 설정들은 '여러 놈들의 처참한 추행'으로 훼손된 여체의 묘사가 두드러진 다음의 작품에서 엽기적인 성향으로 치닫게 된다.

서편 곶쪽으로 람-옌 불 한아가 히미하게 불빛을 나타내고 그 밋호로는 소반 갖흔 침대 하나가 아무렛케나 노혀 잇는데 그 우에는 여자 한아가 아무 의복도 몸에 걸치지 안코 빨간 알몸둥이로 손과 발에는 굴근 줄노 침대까지 아울너 목 거 노코 머리는 산발하야 이리저리고 흐터져서 그 여자에 얼굴을 가리다 심히 하엿다...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업슬 만콤평 빨안 알몸둥이다. 그중에도 토 싯토싯한 육테미가 나는 몸이지만은 벌서 온몸에 과랑빛이 돌고 음부로부터은 만흔 상처 싯헤 유혈이 흐르고 잇다. 아마 여러 놈들이 처참한 추행 싯헤 결국 참지를 못하고 귀신 모르는 죽엄을 당한 것. 빨아버슨 알몸둥이다 머리는 산발 하고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잇다[신효정, 「해상(海上)의 비명(悲鳴)」, 10호].

훼손된 여인의 신체에 대한 묘사의 적나라함은 도착적이리만치 엽기적이다. 위 작품은 동학난의 실패로 중국으로 망명하게 위해 부부가 몰래 들어간 배가 하필이면 조선의 여자를 인신매매하여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배라는 설정에서 시작된다. 끝끝내 강간 당한 아내는 투신자살하고, 이에 '피가 끓어 오른' 남편이 미친 사람 처럼 배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동학이라는 역사적 상황과는 무관하다. 강간과 광기에 휩싸인 채 이루어진 방화라는 자극적인 설정이 독자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

기쁜 밤 그러치 안허도 귀기가 도는 이 음산한 피면을 더욱 처참히 하려든 썸인지 매서운 바람이 희희 날카로운 소리로 울고 잇는 무시무시하고 음산한 밤이었다. 이 박서방의 새 무덤을 파헤치는 괴물이 잇섯다. 무서움도 모르는지 일심불한히 호미로 무덤을 파고 잇다. 드디어 흙 속에서 나온 시체. 관곽도 업시 거적에 싸서 무든 시체를 어더내인 괴물은 그 시체 우에 거꾸러졌다. 박서방의 안해였다. 「용서해 주세요. 30년 전의 그이는 마음의 남편이요 당신은 몸의 남편. 마음의 남편이거나 몸의 남편이거나 누가 중하고 누가 경하리까. 처음의 일념을 관철키 위하여 드는 정을 아닌 체 하고 그의 씨를 맞지 안키 위해서 씨마다 떨구어 버리며 복수의 귀신으로 화해서 30년간 살기는 살았지만 그 목적으로 관철하고 나니 아직껏 아닌 체하든 박서방에 대한 정애가 한꺼번에 소사 오른다. 스스로 남편을 관가에 고해서 죽게 만들고 또한 그 남편 곁에서 따라 죽은 안해의 마음[윤백남, 「초일념(初一念)」, 4회].

『월간야담』에서 자주 실리는 것은 치정과 복수담이다. 그 중에도 위 작품은 단연 돋보인다. 윤백남은 서두에서 이 글을 “홍경래의 난리로 세상이 불끈 뒤집히는 동안 어느 조고마한 산촌”에서 벌어지는 “평화로운 활극”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평화로움 대신 음산함과 기괴함으로 가득 차 있다. 박서방의 무덤을 파헤치던 괴물은 바로 그의 아내, 박보패라는 여인이다. 처녀적 정혼자가 죽은 후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비록 몸은 지금의 남편에게 있지만, 마음만은 그 정혼자에게 두었던 그녀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처음 마음”을 지키고자 남편의 “씨를 떨구어 버릴” 정도로 섬뜩한 “복수의 귀신”으로 살았다. 이와 같은 복수에 대한 일념은 우연한 기회에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정혼자를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순간 망설임도 없이 곧장 관가에 남편의 죄를 고변할 정도로 그녀를 냉정하고 독한 여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복수가 실현되는 순간, 30년 동안 애써 거부했던 “몸의 남편”, 박서방에 대한 “정애”가 마구 솟아난 보패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 미안함 때문에 폭주해 버린다. 그리고 끝내 묻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무덤에서 남편의 시신을 파내, 끌어 안고는 그 곁에서 자결하고 만다. 20세기 야담이 다다른 잔혹성과 엽기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야담의 속성은 1930년대 한국 대중문화를 지배했던 ‘에로와 그로’의 코드<sup>33)</sup> 직접적인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에로 그로’란 1930년대의 유행어에 대

해 당대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발달되고, 자본의 축적이 풍부해면서 소비력이 확대되고 다양화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로 '괴기(怪奇)·잔인(殘忍)·기대(奇態) 등의 성질'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한 1930년대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에로 그로'의 감각은 우연한 계기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현상이라는 것이다.<sup>34)</sup> 취미독물의 야담의 창작도 이러한 당대의 흐름에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괴녀(怪女)의 요무(妖舞), 광란(狂亂)의 무희(舞姬), 암야(暗夜)의 괴녀(怪女), 피 무든 비수' 등은 그 제목만으로 작품의 성향이 괴기(怪奇)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야담들은 기괴한 취미를 선호하는 193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지배적 분위기의 반영인 것이다.

이렇게 20세기 야담의 창작은 전대 문헌을 충실하게 한글로 옮기는 방식, 역사적 기록을 근간으로 상상력을 가미하는 방식, 과거라는 공간적 배경 이외에는 역사적 실제와는 무관한 채 상상력에 의해 창작되는 방식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이중에 상업주의와 결합한 통속적인 '불온한 야담'은 주로 세 번째 방향인 창작 야담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문헌적 근거를 확인하기 힘든 이러한 창작 야담들에서 과거는 단지 작품 속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었을 뿐, 아무런 역사적 실제도 확보하지 못한다. 포로노그라피에 가까운 성애 장면의 묘사가 등장하는가 하면(「송진사의 기연(奇緣)」, 고병철, 11호), 처첩갈등·출생의 비밀·신분을 뛰어 넘는 사랑·삼각관계·살인을 둘러싼 미스터리 등등 통속적인 서사 장치들을 총동원한 작품(「정인가화(情人佳話) 벽오동 심은 뜻은」, 춘금여사, 35호) 등은 독자들의 말초적 감각만을 자극할 뿐인, 지극히 '불온한' 통속적인 작품들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의 저편에는 야담에 대한 통렬한 비난 속에서도 “역사지식(歷史知識)을 통속화(通俗化) 식혀 보급 식히는 비예술적(非藝術的) 방면의 노력도 버릴 일은 못”(『삼천리』, 1934. 6)된다는 기대에 답하는 '건전한' 야담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역사적 문헌에 충실한 첫 번째 계열의 야담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탐정물, 연애물, 전기(傳奇)물, 사화(史話)”(『월간야담』, 11호 편집후기)가 두루 섞여 있었던 『월간야담』의 야담은 건전함과 불온함, 혹은

33) 이에 대해서는 소래섭, 『에로 그로 낚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살림, 2005) 참조.

34) 錦農生, 「에로·그로의 私的考察」, 『비판』(1931.6).

확실한 문헌적 근거와 순전한 작가의 창작이라는 양극단을 두고 다양한 성향이 두루 섞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야담에 대해 ‘통속적 굴욕’이라는 진단은 당대 모든 야담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평가는 『월간야담』이라는 성인용 잡지에 실렸던 ‘상업적 야담’들에 한해서만 정당하고, 그 대부분이 전대의 문헌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창작 야담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통속적이며 퇴폐적인 야담의 얼굴은 성인독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에서 성인 버전으로 생산된 20세 수많은 야담들 중 하나였을 뿐이다. 이렇게 20세기의 야담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산되면서<sup>35)</sup> 건전한 취미독물에서 불온한 취미독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층적인 층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sup>36)</sup>

## V. 맺음말

이상에서 20세기 전반 한국 대중문화의 지형도 속에서 야담의 존재하는 자리를 살펴보았다. 1920년대부터 부흥하기 시작한 조선학 열풍을 배경으로 일어난 조선 역사에 대한 열망을 배경으로 각종 인쇄매체를 통해 온갖 종류의 역사물들이 양산되면서 역사에 대한 대중적 보급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20세기 야담운동은 역사를 통한 민중 교화라는 계몽적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야담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가면서 야담은 초기의 계몽성을 대신 대중적

35) 《동아일보》에서 특정 독자층(아동과 여성)을 겨냥한 ‘소년야담’(1938.10.9~1937.11.4)이나 ‘규등사담(閨燈史談)’(1937.11.17~1938.2.9) 및 ‘야담(1939.10.14~1940.7.14)’이란 기획물들은 ‘예로 그로’와는 거리가 먼 ‘건전한’ 야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모범이 인물들의 행적이나 기이한 사연들, 아니면 ‘알영, 유화부인, 소서노, 선덕여왕, 낙랑공주, 치희, 도미’ 등 역사 속의 여성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36) 공임순에 의해 『가정지우』, 『신시대』, 『아희생활』과 같은 잡지들에 실린 ‘건전한’ 취미독물로서 야담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논리를 전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 선전도구였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공임순, 앞의 논문(2007) 참조. 그러나 그 논의가 구체적인 야담을 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용된 이광수의 「모(母), 매(媒), 처(妻)에게는 야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이광수가 대동아전쟁에 아들을, 오라비를, 남편을 보내야 하는 조선의 여성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의 사례로 신라의 화랑인 화랑창의 어머니와, 그 아내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흥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라디오 야담 방송이 시작되면서 20세기 야담의 대중화는 한층 가열되었고, 『월간야담』과 『야담』이라고 하는 야담잡지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야담잡지의 등장으로 야담은 취미독물로 대중들의 각광 속에서 왕성하게 생산되면서, 당대를 대표하는 대중 서사물로 자리하게 되었다. 대중 서사물로서 야담이 출현하게 되는 데에는 이광수의 역사소설 『마이테자』의 성공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당대 '야담계의 패왕'으로 군림했던 윤백남이 신문에 역사소설을 연재하는 동시에 『월간야담』을 창간, 야담을 발표했다라는 사실은 야담과 역사소설이 공존하면서 대중 서사물로서의 역사물에 대한 당대 대중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나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장편인 역사소설은 지금의 역사 드라마에 비견할 수 있다면, 한때 역사 드라마와 함께 높은 인기를 구가했던 '전설의 고향'은 대부분이 단편인 야담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긴 호흡의 역사 드라마와 짧은 호흡의 '전설의 고향'과 같은 프로그램이 공존하면서, 대중들의 각광을 받았던 것처럼, 192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에 이르는 20세기 전반기 한국 대중 문화계에서도 역사소설과 동시에 야담이 대중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 가면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20세기에서 조선 시대에 창작된 야담처럼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텍스트를 찾는다면, 아마도 '만문(漫文)'이나, '세태소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생생한 사회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안석영의 만문 만화'<sup>37)</sup>나 당대 현실의 동태를 '다각적으로 묘출'한 당대의 걸출한 세태소설들은 조선시대 야담의 전통을 훌륭하게 20세기 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야담은 흥미를 본위에 둔 취미독물로 조선시대의 야담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야담에게 기대했던 그러한 생명력을 20세기에 복원된 야담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신 20세기 한국의 대중문화사에 있어 야담은 역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대 대중들의 기호에 부합하면서 왕성한 생명력으로 생산되었던 문화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37) 신명직, 『모던소년, 경성을 거닐다』(현실문화연구, 2003).

## 참고문헌

『월간야담』; 『야담』; 『별건곤』; 『삼천리』; 『동아일보』; 『조선일보』.

공임순, 「재미있고 유익하게, ‘건전한’ 취미독물 야담의 프로파간다. 『민족문화사연구』 34, 민족문화사학회, 2007, 336~364쪽.

김준형, 「근대 전환기 <옥소선 이야기>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205~228쪽.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화사연구』 20, 민족문화사학회, 2002, 146~177쪽.

소래섭, 『에로 그로 년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 서울: 살림, 2005.

신명직, 『모던쌌이, 경성을 거닐다』.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3, 6~326쪽.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233~259쪽.

임형택, 「18·9세기 ‘이야기꾼’의 소설과 발달. 『고전문학을 찾아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76, 56~69쪽.

임형택, 「야담의 근대적 변모. 『한국한문학』 학회창립 20주년 기념호, 한국한문학회, 1996, 47~85쪽.

정부교, 「근대 야담의 전통 계승 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지』 35, 문창어문학회, 1998, 2~20쪽.

정출현, 「야담의 세계. 민족문화사연구소(엮음), 『민족문화사 강좌(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5, 283~304쪽.

차혜영, 「1930년대 <월간야담>과 <야담>의 자리. 『1930년대 한국문학의 모더니즘과 전통연구』. 서울: 깊은샘, 2004, 205~232쪽.

천정환·이용남,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미. 『민족문화사연구』 30, 민족문화사학회, 2006, 227~265쪽.

### 국문 요약

20세기 야담은 조선역사에 대한 열풍을 배경으로 일어난 역사의 대중화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그 시작을 알린 것은 김진구로, 그에게 있어 야담운동은 역사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는 강연회를 의미했다. 때문에 김진구는 『청구야담』이나 『어유야담』 같은 조선의 야담들을 부정했다. 그러나 야담이 대

중화되면서 김진구가 강조했던 계몽성은 사라지고, 윤백남의 참여로 흥미가 강조되면서 일시적 오락으로 인기를 얻어간다. 이러한 야담이 당대의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경성방송국의 야담 방송을 통해서였다. 이를 통해 윤백남 이외의 신정연, 유추강이라는 스타 야담가가 탄생하였다. 또한 『월간야담』과 『야담』이라는 잡지의 출현으로 '취미독물'로서 야담 역시 많은 인기를 끌었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20세기 야담은 조선시대의 야담문헌은 물론, 『삼국유사』에서 『연려실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에 수록된 '소설적 흥취'가 있는 이야기들을 한글로 복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가 가미된 것,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허구 그 자체로만 이루어진 것 등 3가지 방식으로 20세기 야담이 창작되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통속성과 교훈성을 양 극단으로 하여 다양한 성향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 즉 20세기의 야담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산되면서 건전한 취미독물에서 불온한 취미독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층적인 층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 투고일 : 2008. 1. 15.

● 심사완료일 : 2008. 2. 28.

● 주제어(keyword) : 야담(Yadam), 조선학(Learning of Chosun), 김진구(Kim Jin-Goo), 윤백남(Yoon Baek-Nam), 신정연(Shin Jeong-Un), 유추강(Yu Choo-Kang), 『월간야담』(Wolgan Ya-dam), 취미독물(reading subject for hobby), 경성방송국(Gyung-Sung Broadcasting System).